실효성 없는 김영란법 이참에 없애자

이정희의 西村브리핑

얼마전 한 기업체 홍보 담당자와 만났더니 "시행 초반에야 시범 케이스로 걸릴까 봐 다들 조심했지만 솔직히 요즘 누가 3만원 따지면서 밥을 먹느냐"며 "밥값이 3만원 넘으면 식사 인원을 부풀리는 식으로 꼼수를 동원한 지 오래됐다"고 털어놨다.

서울 시내 음식점 사장님도 "식재료값과 인건비가 폭등해 음식값도 많이 올라가기도 했지만 거기에 따라가는 맥주나 소주 같은 음료값을 고려하면 1인당 3만원은 지켜질 수 없는게 현실"이라고 했다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7년이 지났다. 그 사이 물가는 오르는데 법은 그대로인 탓에 식사비 한도를 어기는 경우가 많고, '요즘 누가 경조사비를 5만원만 내느냐'는 푸념도 쏟아진다. 명절이면 소비 활성화 대책으로 '김영란법'이 동원되는 것도 기형적이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최근 정부는 내수 진작 차원에서 식사비 기준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간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기준이 조정된 적이 있었으나 식사비는 한 번도 조정되지 않았다는 점이 고려됐다.

부정청탁 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은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법안은 당초 공직자의 부정한 금품 수수를 막겠다는 취지로 제안됐지만 입법 과정에서 적용 대상이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으로까지 확대됐다. '김영란법'을 적용받는 공직자·언론인·사립학교 교직원 등 대상자들에 대해 3만원 이상의 식사 대접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식사비 외에는 축의금과 조의금이 5만원, 화환과 조화가 10만원, 선물은 5만원 등으로 상한선을 제한하고 있다. 농수산물 선물은 2017년 개정을 통해 10만원으로 예외를 뒀다. 또 2020년과 2021년에는 설과 추석 명절 기간에만 농수산물 선물 가액 범위를 20만원으로 올리는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김영란법'의 도입 목적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제1조)였지만 법의 파급 효과가 공직자·공직기관의 범위를 훨씬 넘어서 전 국민의 생활상을 바꾸어 놓았다. 불필요한 접대문화, 인식개선, 기업의 접대비 지출 감소 등의 순기능도 있었지만 법망을 피하는 수법이 진화하는 등 편법과 꼼수가 만연해 실효성 없는 법이 아니냐는 시각이 적지않다. 큰 도둑은 못잡기에 공직 사회의 청렴성을 보장하는 결정적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대다수다. 당장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검사들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향응과 금품을 받은 현직 검사와 박영수 특검 사건, 곽상도 전 의원 아들 50억원 퇴직금 등이 대표적이다.

누군가 신고하지 않으면 걸릴 일이 없다는 점에서 무용론도 만만치 않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김영란법' 적용 대상은 251만여 명에 이르지만 2021년 제재 처분을 받은 공직자는 321명에 불과했다. 위반 신고 건수도 2018년 4386건에서 2020년 이후 연간 1000건대 수준으로 급감했다.

'김영란법'을 유지하면 물가 상승으로 식사비가 오를 때마다 정부가 식사비 기준을 변경하는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질 수 밖에 없다. 청탁과 뇌물을 받은 공직자는 뇌물죄로 처벌해 부정부패를 막자는 법의 취지는 살리고, 실효성 떨어진 '김영란법'은 이참에 없애는 것이 맞다고 본다.

김홍식 작가의 '자존감 산문집'에 나오는 "필요없는 답은 세우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세워져 있는 답이 필요 없을 때는 빨리 허무는 것이 넓은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비결"이라는 글귀가 새삼 가슴에 와닿는다. /ljnh@metroseoul.co.kr

끊이지 않는 예탁원 사장 낙하산 논란

기자수첩

원관희 〈자본시장부〉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인선에 있어 낙하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까지 있었던 4차례 예탁원 신임 사장 선임에서 매번 낙하산 인사가 반복됐다. 2월 말로 퇴임한 이명호 사장까지 세 명의 사장은 모두 관료 출신이었다면 이번에 선임된 이순호 내정자는 비관료 출신으로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활동했다. 지난 28일 열린 주주총회에서 예탁원 신임 사장으로 선임된 이순호 내정자는 금융연구원 은행보험연구2실장으로 일했다. 금융위원회의 승인이 이뤄지면 이 내정자는 빠르면 오는 3월 3일 임기 3년의 예탁결제원 신임 사장에 취임한다.

이 내정자는 신임사장 공모 직후부터 내정설이 불거지면서 보은 인사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윤 대통령 대선 캠프 활동 당시 경제 분야 싱크탱크 구성원으로 참여했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비상임 자문위원을 지냈던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 내정자는 예탁원 신임 사장에 이미 낙점됐다는 공정성 논란과 더불어 전문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오랜 기간 은행법 전문가로 연구 분야에서 일했기 때문에 예탁원의 주 업무인 자본시장과 무관해 예탁원을 잘 이끌어갈 수 있을지 우려됐다. 하지만 이 내정자는 예탁원 사장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내보였다. 사장 선임에 앞서 NH농협금융지주 사외이사직을 사임하는 등 이해상충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도 했다.

이 내정자에 대한 예탁원 노동조합의 반발이 심상치 않다. 노조는 이 내정자의 사장 선임을 지속해서 반대해왔다. 예탁원 사장직 응모 자진 철회, 사장 재공모 절차 진행 등을 요구했다. 금융위에서 이 내정자의 선임을 승인할 경우 예탁원 노조는 출근 저지 등 총력투쟁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차기 예탁원 사장 앞에는 가시밭길이 펼쳐진 상황이다. 우선 노조의 반발을 잘 해결하고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문성 부족 논란을 잠재울 수 있어야 한다. 이 내정자는 증권형 토큰(STO) 사업, 자본시장법 개정, 차세대 시스템 추진, 서울·부산 이원화된 업무공간에 따른 구성원 고충 해결 등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는 업무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

이 내정자가 이른 시일 내에 경영 능력을 입증하며 세간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느냐에 따라 앞으로 예탁원의 순항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wkh@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생각한힘

문제출제:손호성

문제풀이방법

4X3 스도쿠는 가로,세로,4X3박스에 1부터9 ABC의 문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부등호 스도쿠는 가로,세로,3X3박스에 1부터9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3	6						5	7
9	7		3	4			1	2
							9	
	4						7	
	9							
6	3			2	1		8	4
4	1						2	9

	3					7		
			8					1
8				7				
			6		8		2	
		4				1		
	5		2		4			
				6				7
4					7			
		8					5	

하루에 한 장 기적의 두뇌퍼즐 사무라이스도쿠

손호성 저 | 스도쿠65 | 10,000원

정답

3	6	4	2	1	8	9	5	7
9	7	5	3	4	6	8	1	2
1	8	2	7	9	5	6	4	3
8	5	3	6	7	2	4	9	1
2	4	6	1	5	9	3	7	8
7	9	1	8	3	4	2	6	5
5	2	9	4	8	7	1	3	6
6	3	7	9	2	1	5	8	4
4	1	8	5	6	3	7	2	9

1	3	9	5	4	2	7	8	6
5	7	6	8	3	9	2	4	1
8	4	2	1	7	6	9	3	5
3	9	7	6	1	8	5	2	4
2	8	4	7	5	3	1	6	9
6	5	1	2	9	4	3	7	8
9	2	3	4	6	5	8	1	7
4	1	5	3	8	7	6	9	2
7	6	8	9	2	1	4	5	3

고난이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argo9.com

오늘의 운세

3월 3일 (음 2월 12일) http://www.saju4000.com

쥐 **36년생** 배우자와 싸움에서 이기려 할 것 없다. **48년생** 용띠와의 거래는 무난. **60년생** 기술력실력을 발휘하고 돈도 생긴다. **72년생** 지금실패는 권토중래(捲土重來)이니 다시 시작을. **84년생** 쓸모없는 것이 때에 따라서 쓸모가 생긴다.

소 **37년생** 배우자가 있어도 외로움이 느껴지는 날. **49년생** 움직여서 돈이 생기니 활력도 생긴다. **61년생** 마른논에 물들어오듯이 일이 잘 해결. **73년생** 탐구가 끝났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자. **85년생** 거래에서 넓은 마음과 양보를.

호랑이 **38년생** 한발 물러서서 보면 길이 보인다. **50년생** 내가 믿어야 남도 설득 시킬 수 있다. **62년생** 일처리 걱정만하고 해결은 못한다. **74년생** 지극한 마음으로 구하면 원하는 것을 얻는다. **86년생** 쥐띠와의 부동산 거래는 살펴야 한다.

토끼 **39년생** 꿈을 꾸는 데는 돈이 들지 않으니 생각을 펼쳐보자. **51년생** 사방에서 운이 들어오는 날이니 거칠 것이 없다. **63년생** 물은 고이면 썩기 시작. **75년생** 간발의 차이로 기회를 놓친다. **87년생** 상대의 단점을 지적하면 나에게 온다.

용 **40년생** 명예는 높이지만 실속은 별로 없다. **52년생**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오늘만 같아라. **64년생** 의외의 귀인이 바로 옆에 있었다. **76년생** 행운은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니 준비하고 노력. **88년생** 큰솥은 쉽게 만들어지지 못한다.

뱀 **41년생** 가족과 협동하여 일을 성사. **53년생** 자식의 재능이 두드러지니 지원을 아끼지 마라. **65년생** 집 나간 말이 가족을 일구니 이득이 많다. **77년생** 남다른 재주가 있어 든든. **89년생** 하루 종일 번뇌가 많으니 명상을 추천한다.

말 **42년생** 뜻대로 되는 자식은 별로 없으니 마음을 비워라. **54년생** 밑 빠진 독에 물을 붓고 있는 것. **66년생** 기쁨과 근심은 동전의 양면과 같으니 마음먹기 나름. **78년생** 물 건너서 기쁜 소식이 들려온다. **90년생** 남이 하는 일을 훼방은 말자.

양 **43년생** 운동 열심히 하고 주변을 청결히. **55년생**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말고 전진. **67년생** 길을 떠나게 되면 상비약을 챙겨라. **79년생** 내 것이 아닌 것은 과감하게 접는 것이. **91년생** 연인에게 자신만을 알아달라고 늘어지지 않도록.

원숭이 **44년생**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다. **56년생** 시간은 많이 남아있다. **68년생** 날씨 탓만 하지 말고 밖으로 나가서 일을 찾아라. **80년생** 구설수가 있으니 오늘은 말조심. **92년생** 분수를 모른 채 날뛰는 것을 당랑거철(螳螂拒轍)이라 일컫는다.

닭 **45년생** 흔들리며 사는 것도 인생사. **57년생** 자식 자랑으로 입에 침이 마른다. **69년생** 뜻밖의 초대로 기분이 좋으나 손재수도 있다. **81년생** 자신에게 여유 있는 시간을 투자하는 것도 보람. **93년생** 발등을 찍는 것은 바로 내 도끼이다.

개 **46년생** 말이 씨가 되니 비관적인 말은 피해보자. **58년생** 자식에게 가르칠 건 가르쳐라. **70년생** 부동산에 변화의 운이 있으니 현명하게 판단을. **82년생** 신세 졌던 사람이 빚을 갚으러 온다. **94년생** 이빨 빠진 호랑이의 심정을 알 것 같다.

돼지 **47년생** 증여하고 나서 가족정체성에 혼란이 오니 마음을 단단히. **59년생** 먹고살기 위해 일할 수밖에 없다. **71년생** 뭐든지 한걸음부터 시작. **83년생** 의지가 약하다면 공부를 더해보라. **95년생** 요령보다는 실력으로 백발백중(百發百中)되도록.

김상회의 四季

결혼이 힘든 인연

삼포세대라 해서 연애와 결혼 그리고 아이를 낳는 것을 포기한 세대라 불린다. 이 신조어에 더하여 오포세대란 말까지 등장했는데 앞의 세 가지 포기와 더불어 취업과 주택구입까지 포기한 것을 의미한다. 그만큼 경쟁은 치열해지고 사회적 경제적 비용은 치솟아 한국의 많은 젊은 세대들은 베이비붐 세대인 부모들에 비해 살기가 더 팍팍해진 환경에 놓인 것임을 방증한다. 부모세대는 대한민국이 고도성장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저변 인프라는 좋지 않았어도 취업과 결혼은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았다. 어느 순간 결혼포기 세대가 돼 버린 것이다.

예전에는 결혼이 힘들다며 찾아오는 것은 대부분 딸을 둔 어머니들이었다. 그런데 요즘은 골드 미스라 불리는 아가씨들은 그렇다 치고 총각들도 결혼생각이 없다며 주변에서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걱정은 걱정이다. 얼마 전에 곱상한 인상의 부인이 상담을 왔다. 예전 같으면 60대는 완연한 노부인으로 불려야겠으나 세월이 젊어져서인지 나이 먹은 티가 별로 없어서 십년은 젊게 보였다. 그러나 얼굴에는 수심이 있다. "선생님 제 딸아이인데요. 도대체 언제 결혼운이 있는지 답답합니다."하면서 생년월일을 내보였다. 보자니 일주 백호살에 월지에는 과숙살(홀로 사는 과부살)이 보인다. 옛날 같으면 어른들끼리 궁합을 맞혀보고 혼사를 진행시켰을 텐데 여자사주로 꺼리는 하나가 백호살과 과숙살이다. 그런데 관성도 보이지 않으니 아무리 선을 봐도 성사가 어렵고 어떻게 연애를 한다 해도 결혼까지 가는 길이 험난하다. 따라서 결혼은 늦게 하라는 소리를 듣는다. 늦게 해도 평탄한 관계지속이 어려워 금방 이혼을 하고 재혼을 여러 번 하게 되어 나중에는 혼자 사는데 그래도 마음을 비우고 지내면 좋아질 수 있는 것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 장 규	편집국장	김 승 중
인 쇄 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139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243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